

항일무장투쟁시기 수령형상미술품은 주체문학예술의 만년재보

최근 조선미술작품에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작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형상한 미술작품들이 전신되어 만사함을 환회와 격정에 넘치게 하고있다.

이번에 항일혁명의 나날에 벌써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미술작품의 창작과 보급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역사적사실을 수령형상미술의 가치를 높이 들고 대고조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크게 고무해주고있다.

이번에 발굴된 항일무장투쟁시기 수령형상미술작품들은 주체미술사뿐만 아니라 주체문학예술발전사에서 참으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수령형상미술의 시원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해명은 수령형상미술작품이야말로 주체문학예술전통의 근본으로 된다는 력사의 진리를 다시금 뚜렷이 확증해주었다.

이로 하여 수령형상미술의 만년재보인 항일혁명문학예술유산의 보물고는 더욱 풍부해졌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오랜 력사와 귀중한 유산을 가진 혁명적문학예술전통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다시금 가슴 벅차게 안겨주고 혁명선열들처럼 수령형상미술의 진위투사가 되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줄라는 결의와 각오를 더욱 굳게 다지게 하여주고있다.

수령형상이 얼마나 폭넓고 뿌리깊은가를 웅변적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이번에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미술작품들이 발굴됨으로써 주체문학예술은 문학이 아닌 미술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미술작품들이 발원하였음을 분명히 하고있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진행된 수령형상미술창작활동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에게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며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널리 선전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사업으로 되었다. 일제의 가혹한 통치와 학정속에서 수령형상미술작품창작이 하나의 사조처럼 파급되고 대중의 심금을 울려주는 예술로 발전하여온 력사적사실은 수령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절찬한 인민대중에 의하여 창조되는 수령형상미술은 혁명투쟁과 력사발전의 추동력은 위대한 수단으로 된다는 것을 힘있게 증명해주고있다.

항일혁명미술은 1930년대 조국해방을 위한 전진적행위의 불길속에서 건설적영웅 김일성장군님께서 직접 조직명도하신 혁명투쟁과 력사적사실들을 반영한것으로 하여 주체사상의 심오성과 철학적성이 확고히 보장되었다. 이와 함께 대양홍모의 열렬한 지향성에 있어서, 민족화육의 독창성, 다양성으로 하여 진행되는 조국주의미술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수령형상미술의 력사적사실로서 된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개척된 수령형상미술은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해방투쟁의 중심으로, 천만대적들을 위시하여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으로 격조높이 칭송하고있다.

조선화 《김대장조종리장군장배울안에 넘친다》, 《김일성사령관원수격멸에로 부르시다》, 《빨치산호랑이》, 《빨치산 6도구의 적들을 유인격멸소탕하시다》, 《관화 《작전을 구상하시는 김일성사령관》은 위대한 수령님을 어떻게 강도 일제를 쳐물리치고 기어이 조국해방을 이룩할수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드르는 우리 인민의 전진적사실감을 진실하면서도 씩씩하게 반영하고있다.

조선화 《김대장조종리장군장배울안에 넘친다》는 흰구름이 피어오르는 백두산정에서 서서 저 멀리 조국산맥을 바라보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품과 원수들을 노르모여 피성을 떠뜨리는 백두산호랑이의 위용을 통하여 인민들속에 무수히 꽃피어난 백두산전설을 감명깊은 예술적회상으로 펼쳐보이고있다.

백두산의 기상과 담력을 그대로 지니신 빨치산 김대장의 위인상일과 빛을 잃은 원수들이 두손을 높이 쳐들고 사시나무썰매 하는 모습에 위대한 수령님을 백두산호랑이로 모셔모인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이 진실하게 반영되어있다.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족자형식의 화면투수에 민족의 성지인 백두산과 하늘로 치솟아오르는 봉의 기상과도 같은 구름형상은 작품의 진실

적인 내용을 더욱 부각시키고있다.

조선화 《김일성사령관 원수격멸에로 부르시다》, 《빨치산호랑이》, 《관화 《작전을 구상하시는 김일성사령관》은 력사적사실은 수령의 무비적시원본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증증할수 있게 되었다.

이 작품들에서는 하나같이 싸움터의 중심에 지휘자를 정하고 대원들을 원수격멸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모시고있다. 나팔수와 기관총수, 싸움터에서 팽팡히 노래를 부르는 아동대원들이며 단발머리를 날리며 적을 향해 나가는 유격대원들을 비롯한 만만치 않은 군상들은 사령관동지께서 만만치 않은 반듯이 승리한다는 절대적인 신념을 지니고 피어던 격정장담에서 용맹을 펼친 항일의 혁명가들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형성되고있다.

관화 《작전을 구상하시는 김일성사령관》은 사령관부림에서 사령관도록 작전지시장을 무르익히시는 강철의 명장 김일성장군님의 위인적품도를 깊이있게 형성한 특색있는 작품이다.

태고연한 밀림의 깊은 밤 어둠을 밝히는 등잔자반들의 희미한 빛의 화살표들 그늘이 지도록 보이며 손에 연필을 쥐신채 심원한 사색의 세계를 펼쳐가시는 김일성장군님의 거룩한 형상은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기 위해 바치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헌신의 자취를 가슴뜨겁게 새겨보게 한다. 20대의 청년영웅 김일성장군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관화기법으로 감명깊게 형성한 작품은 우리 나라의 첫 수령형상관화로서 관화미술의 전통을 새로운 경지에 올려세운 의의있는 작품이다.

항일혁명미술은 위대한 수령님을 작품의 중심에 정중히 모시면서 수령님의 평도말에 조직행동한 항일무장투쟁의 력사적회화를 실감있게 형성함으로써 탁월한 수령을 묘사하여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고 조국해방도 이룩할수 있다는 철리를 밝히고있다.

이번에 발굴된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수령형상미술작품들은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 인민들과 고향을 같이하시며 인민에 대한 개자개자 사랑의 진심을 수놓은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품도를 깊이있게 형성하고있다.

조선화 《약수동마을 농민들의 소를 돌려주시는 김대장》, 《김대장 빨치산원수격멸에로 부르시다》, 《관화 《작전을 구상하시는 김일성사령관》은 위대한 수령님을 어떻게 강도 일제를 쳐물리치고 기어이 조국해방을 이룩할수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드르는 우리 인민의 전진적사실감을 진실하면서도 씩씩하게 반영하고있다.

조선화 《김대장조종리장군장배울안에 넘친다》는 흰구름이 피어오르는 백두산정에서 서서 저 멀리 조국산맥을 바라보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품과 원수들을 노르모여 피성을 떠뜨리는 백두산호랑이의 위용을 통하여 인민들속에 무수히 꽃피어난 백두산전설을 감명깊은 예술적회상으로 펼쳐보이고있다.

백두산의 기상과 담력을 그대로 지니신 빨치산 김대장의 위인상일과 빛을 잃은 원수들이 두손을 높이 쳐들고 사시나무썰매 하는 모습에 위대한 수령님을 백두산호랑이로 모셔모인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이 진실하게 반영되어있다.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족자형식의 화면투수에 민족의 성지인 백두산과 하늘로 치솟아오르는 봉의 기상과도 같은 구름형상은 작품의 진실

적인 내용을 더욱 부각시키고있다.

조선화 《김일성사령관 원수격멸에로 부르시다》, 《빨치산호랑이》, 《관화 《작전을 구상하시는 김일성사령관》은 력사적사실은 수령의 무비적시원본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증증할수 있게 되었다.

이 작품들에서는 하나같이 싸움터의 중심에 지휘자를 정하고 대원들을 원수격멸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모시고있다. 나팔수와 기관총수, 싸움터에서 팽팡히 노래를 부르는 아동대원들이며 단발머리를 날리며 적을 향해 나가는 유격대원들을 비롯한 만만치 않은 군상들은 사령관동지께서 만만치 않은 반듯이 승리한다는 절대적인 신념을 지니고 피어던 격정장담에서 용맹을 펼친 항일의 혁명가들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형성되고있다.

이와 같이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수령형상미술작품들의 발굴은 주체미술의 자랑스러운 력사를 더욱 깊이있게 빛나게 장식하여주고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의 뿌리를 굳건하게 하는데서 매우 중대하고 의의있는 계기로 되고있다.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은 선군의 폭풍우속에서 뿌리내린 선군혁명문학예술전통이다.

위대한 력사와 귀중한 유산을 가진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이 있었기에 우리 문학예술은 주체의 한길로 곧바로 걸어왔으며 사회주의문학예술의 본보기로 세기와 세기를 이어 끊임없이 개화발전해왔을수있다.

우리 나라에서 수령형상미술의 시원을 열어놓은 개척자들이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라는 사실은 선군혁명위업의 전진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다시금 실증해주고있다.

이번에 발굴된 수령형상미술작품들은 1930년대 후반부터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과 대원들, 유격대원지휘관들이 지도하는 혁명조직의 영향을 받고있던 애국적인 화가들에 의해 창작된 작품들이다.

새로 발굴된 수령형상미술작품들중에서 많은 작품들이 조선인민혁명군 대내출판물인 《3.1월간》, 《서평》, 《종소리》, 《월령》에 게재되었던 빨치산의 미술작품들이다.

항일무장투쟁시기 마당구무대영에서 군정학습이 진행되던 시기에 발간된 《종소리》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선구적 혁명정신을 내용으로 한 조선화, 삽화, 선화화물들이 게재되어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작품들은 그후 복제되어 학습강사들과 선동원들이 널리 이용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대내기판지 《서평》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맹렬한 명군술의 현명성과 한없이 퍼지는 어버이수령님을 형상한 작품들도 있다.

관화 《우등불을 피워주시는 김대장》과 동사그림 《대원들의 신발을 기워주시는 김대장》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투쟁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감동깊게 펼쳐보이고있다.

관화 《우등불을 피워주시는 김대장》은 속역에서 대원들의 옷을 기워주는 김대장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투쟁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감동깊게 펼쳐보이고있다.

관화 《우등불을 피워주시는 김대장》은 속역에서 대원들의 옷을 기워주는 김대장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투쟁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감동깊게 펼쳐보이고있다.

수령형상미술에서 조선화와 관화, 삽화, 연필화를 비롯한 다양한 형식을 도입한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수령형상미술작품들은 주체미술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해주고있다.

이와 같이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수령형상미술작품들의 발굴은 주체미술의 자랑스러운 력사를 더욱 깊이있게 빛나게 장식하여주고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의 뿌리를 굳건하게 하는데서 매우 중대하고 의의있는 계기로 되고있다.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은 선군의 폭풍우속에서 뿌리내린 선군혁명문학예술전통이다.

이번에 발굴된 수령형상미술작품들은 1930년대 후반부터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과 대원들, 유격대원지휘관들이 지도하는 혁명조직의 영향을 받고있던 애국적인 화가들에 의해 창작된 작품들이다.

항일무장투쟁시기 마당구무대영에서 군정학습이 진행되던 시기에 발간된 《종소리》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선구적 혁명정신을 내용으로 한 조선화, 삽화, 선화화물들이 게재되어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작품들은 그후 복제되어 학습강사들과 선동원들이 널리 이용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대내기판지 《서평》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맹렬한 명군술의 현명성과 한없이 퍼지는 어버이수령님을 형상한 작품들도 있다.

관화 《우등불을 피워주시는 김대장》과 동사그림 《대원들의 신발을 기워주시는 김대장》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투쟁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감동깊게 펼쳐보이고있다.

수령형상미술에서 조선화와 관화, 삽화, 연필화를 비롯한 다양한 형식을 도입한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수령형상미술작품들은 주체미술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해주고있다.

이와 같이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수령형상미술작품들의 발굴은 주체미술의 자랑스러운 력사를 더욱 깊이있게 빛나게 장식하여주고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의 뿌리를 굳건하게 하는데서 매우 중대하고 의의있는 계기로 되고있다.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은 선군의 폭풍우속에서 뿌리내린 선군혁명문학예술전통이다.

이번에 발굴된 수령형상미술작품들은 1930년대 후반부터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과 대원들, 유격대원지휘관들이 지도하는 혁명조직의 영향을 받고있던 애국적인 화가들에 의해 창작된 작품들이다.

항일무장투쟁시기 마당구무대영에서 군정학습이 진행되던 시기에 발간된 《종소리》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선구적 혁명정신을 내용으로 한 조선화, 삽화, 선화화물들이 게재되어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작품들은 그후 복제되어 학습강사들과 선동원들이 널리 이용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대내기판지 《서평》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맹렬한 명군술의 현명성과 한없이 퍼지는 어버이수령님을 형상한 작품들도 있다.

관화 《우등불을 피워주시는 김대장》과 동사그림 《대원들의 신발을 기워주시는 김대장》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투쟁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감동깊게 펼쳐보이고있다.

수령형상미술에서 조선화와 관화, 삽화, 연필화를 비롯한 다양한 형식을 도입한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수령형상미술작품들은 주체미술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해주고있다.

이와 같이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수령형상미술작품들의 발굴은 주체미술의 자랑스러운 력사를 더욱 깊이있게 빛나게 장식하여주고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의 뿌리를 굳건하게 하는데서 매우 중대하고 의의있는 계기로 되고있다.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은 선군의 폭풍우속에서 뿌리내린 선군혁명문학예술전통이다.

이번에 발굴된 수령형상미술작품들은 1930년대 후반부터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과 대원들, 유격대원지휘관들이 지도하는 혁명조직의 영향을 받고있던 애국적인 화가들에 의해 창작된 작품들이다.

항일무장투쟁시기 마당구무대영에서 군정학습이 진행되던 시기에 발간된 《종소리》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선구적 혁명정신을 내용으로 한 조선화, 삽화, 선화화물들이 게재되어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작품들은 그후 복제되어 학습강사들과 선동원들이 널리 이용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대내기판지 《서평》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맹렬한 명군술의 현명성과 한없이 퍼지는 어버이수령님을 형상한 작품들도 있다.

관화 《우등불을 피워주시는 김대장》과 동사그림 《대원들의 신발을 기워주시는 김대장》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투쟁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감동깊게 펼쳐보이고있다.

수령형상미술에서 조선화와 관화, 삽화, 연필화를 비롯한 다양한 형식을 도입한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수령형상미술작품들은 주체미술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해주고있다.

1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수령형상미술작품들은 주체문학예술의 뿌리를 더욱 굳건하게 해준 고귀한 력사적재보이다.

항일혁명문학예술전통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개척시대, 주체시대의 력사를 개척한 민족의 태양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문학예술창작업적과 유산이다.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명도력, 고매한 지성을 지니시고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절대적인 권리와 위인적품도는 항일혁명의 초시기부터 수많은 칭송의 노래와 작품들이 대내외로 퍼져나와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항일혁명문학예술은 처음부터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여 혁명의 수령을 찬송한 훌륭한 작품을 내놓았다.》

우리 나라에서 수령을 형상한 예술작품창조는 조선혁명의 빛이 오르던 력사의 기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혁명가 《조선의 별》과 백두산전설은 《E. C》의 열혈투사와 우리 인민들이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진실적영웅,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칭송하여 창작하고 널리 보급한 수령형상의 첫 문학예술작품들이었다. 몇해전에도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열렬히 칭송하여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창설보급되었던 많은 시가작품들이 새로 발굴된 사실은 백두에서 개척되고 발전봉부화되어온 수령형상문학에

2

이와 같이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수령형상미술작품들의 발굴은 주체미술의 자랑스러운 력사를 더욱 깊이있게 빛나게 장식하여주고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의 뿌리를 굳건하게 하는데서 매우 중대하고 의의있는 계기로 되고있다.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은 선군의 폭풍우속에서 뿌리내린 선군혁명문학예술전통이다.

이번에 발굴된 수령형상미술작품들은 1930년대 후반부터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과 대원들, 유격대원지휘관들이 지도하는 혁명조직의 영향을 받고있던 애국적인 화가들에 의해 창작된 작품들이다.

생각과 학습과 생활과 혁명적광만이 만년재보!

실한것 복물아치는 백두명령에 나래치던 불굴의 투쟁기풍이 사회주의강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가는 위대한 선군시대에도 더욱 높이 발휘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이것은 곧 우리 인민의 힘의 원천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얼마전 파산군을 찾았을 때였다. 근간의 일군들은 물론 나병환자들을 비롯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파산군종이목재가공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일본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널리 소개해줄것을 부탁하였다.

찾아보니 들린바그대로였다. 생산현장은 물론 사무실과 식당, 무욕탕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물들이 세 개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져있었다. 원로세척기, 마쇄

백두명령에 차려진 혁명적관공주의정신으로 살며 일할 때 기적과 혁신이 창조된다는것은 2중3대혁명붉은기맹신선로공장 종업원들의 투쟁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광만이 없이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나갈수 없고 미래를 위하여 한몸바쳐 투쟁할수 없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때일수록 사람들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난관을 극복해나갈수 있어야 합니다.》

—가는 길 힘내도록 웃으며 가자!

이것은 항일유격대원들의 락천적인 생활기풍을 구현해가는 이력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간직하고있는 신념이다.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도적인 작전에 따라 공장에서의 자력의 힘으로 여러층으로 된 생산건물을 일떠세우며 현대적인 기초시설을 건설하는 등 새로운 투쟁기풍을 본받아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공건설인업건설에서 일대혁신을 일으켜 10월의 경축광장을 멋있게 장식하고 호소하였다.

로동동원원 정 순 화

항일혁명투사들에게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65돐 기념메달 수여

항일혁명투사들에게 로씨야 리방 정부에서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65돐 기념메달을 수여하였다.

기념메달을 수여하는 의식이 4일 주조 로씨야연방대사관에서 있었다.

의식에는 박의춘외무장, 리방 조종로동당 중앙위원회 당 력사연구소 부소장과 팔레리 슈히닌 로씨야연방 특별전선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백두산위인들의 손길아래 기업소가 걸어난 자랑찬 력사를 감회깊이 되새기고있다.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에서—

회상기 학습을 통하여

선군군 호관리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서 항일혁명투사들의 백전백승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따라배우는 회상기 학습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에서 주별, 월별 회상기 학습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일군들부터가 깊이

회상기 학습을 통하여

학습한데 기초하여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서 독보와 해설모임을 실효있게 진행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얼마전 어느 한 작업반에 나간 리당위원회의 일군은 농장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작업의 일환에 항일빨치산참가자들의 회상기 《명명은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에 대한 해

설을 진행하였다.

그는 적들의 끈질긴 추격과 포위속에서도 부대의 식량과 물품을 절약하며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결사관철한 항일혁명투사들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공건설인업건설에서 일대혁신을 일으켜 10월의 경축광장을 멋있게 장식하고 호소하였다.

로동동원원 정 순 화

심심은 드시고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항일유격대원들처럼 자력갱생, 고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일해나갈 때만 승리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그의 당에서 승리를 거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당에서 승리를 거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당에서 승리를 거둔 바가 없습니다.

자력갱생의 진리를 확신하고 파산군종이목재가공공장에서

이것은 곧 우리 인민의 힘의 원천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이것은 곧 우리 인민의 힘의 원천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인민의 힘의 원천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이것은 곧 우리 인민의 힘의 원천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인민의 힘의 원천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이것은 곧 우리 인민의 힘의 원천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혁명적광만에 넘칠 때 맹산식료공장에서

이것은 곧 우리 인민의 힘의 원천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이것은 곧 우리 인민의 힘의 원천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인민의 힘의 원천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이것은 곧 우리 인민의 힘의 원천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인민의 힘의 원천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이것은 곧 우리 인민의 힘의 원천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혁명적광만에 넘칠 때 맹산식료공장에서

이것은 곧 우리 인민의 힘의 원천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이것은 곧 우리 인민의 힘의 원천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인민의 힘의 원천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이것은 곧 우리 인민의 힘의 원천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인민의 힘의 원천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이것은 곧 우리 인민의 힘의 원천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혁명적광만에 넘칠 때 맹산식료공장에서

이것은 곧 우리 인민의 힘의 원천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이것은 곧 우리 인민의 힘의 원천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인민의 힘의 원천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이것은 곧 우리 인민의 힘의 원천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인민의 힘의 원천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이것은 곧 우리 인민의 힘의 원천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혁명적광만에 넘칠 때 맹산식료공장에서

이것은 곧 우리 인민의 힘의 원천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이것은 곧 우리 인민의 힘의 원천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인민의 힘의 원천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이것은 곧 우리 인민의 힘의 원천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인민의 힘의 원천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이것은 곧 우리 인민의 힘의 원천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인민소비를 더 많이, 더 좋게! 공동시설의 과업을 받들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전환을

대중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발양시켜 평양시 식료일용공업관리국에서

평양시 식료일용공업관리국 아래 공장, 기업소들에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커다란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 당장전 65살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공동시설의 전투적과업판첩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이곳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올해에 들어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매달 말려진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간장, 된장, 쌀베리누, 학습장, 연필, 학습가방 등 인민소비품의 질적수준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늘어나는 1차소비품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해 나가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기업의 지방공업을 병행하여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독창적인 우리 식의 경공업

건설방침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방공업부문에서 간장, 된장, 먹는 기름, 사탕, 파자, 청량음료, 어린이영양식품들과 같은 여러가지 식료품과 세소일용품, 종이와 학습장, 가구와 목제품 같은것을 만들어 주도록 자기 지방의 원료로 만들어야 하며 그것으로 주민들의 수요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평양시 식료일용공업관리국 일꾼들은 인민생활대고조의 해인 올해에 장도리를 단단히 하고 1차소비품생산에 책임적으로 뛰어취고 내걸고 있다.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박철훈, 오경봉동무를 비롯한 평壤국의 책임일꾼들은 언제나 들끓는 현장에 나가 지방산업공정들의 현대화를 추진하는데서 결고있는 문제는 어떤 것인지를, 생산정상화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나가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료해하

사람이 더 빨리, 더 잘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과학자, 기술자들은 애국의 열정을 쏟아부으며 힘과 지혜를 합쳐가고 있다.

관리국아래 만경대식료공장, 락방식료공장, 통복식료공장을 비롯한 각 구역의 식료공장들에서 시안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맛있게 영양이 높은 당과류를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하여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고 있다. 이들은 이미 마련된 생산계획을 최대한 초과적으로 리용하는것과 함께 자체의 힘과 기술로 기술개선을 통하여 크게 벌려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하나씩하나씩 실현하면서 제품의 질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다.

관리국아래 모든 공장들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의 요구대로 인민소비품생산에 대대적으로 달려나갈 것이라는 결의에 충만하여 신심드높이 총진군의 북소리를 힘있게 울려가고 있다.

본사기자 명흥숙

신 의 주 기 초 식 품 공 장 에 서

신 의 주 기 초 식 품 공 장 의 일꾼 들 과 로 동 자, 기 술 자 들 이 인 민 에 대 한 헌 신 적 과업 판 첩 에 떨 쳐 나 선 이 들 은 신 심 과 락 판 에 넘 쳐 생 산 을 높 은 수 준 에 서 정 상 화 계 획 을 최 청 단 물 과 의 열 몸 을 세 차 게 일 으 켜 가 고 있 다.

위 대 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는 아 래 하 고 있 는 바 에 행 복 하 고 문 명 한 생 활 을 마 련 해 주 시 려 는 우 리 장 군 님 의 승 고 한 뜻 을 더 잘 받 들 어 나 가 주 시 었 다.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는데서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인민에 대한 헌신적투쟁과 주인다운 열정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초식품에 대한 인민들의 요구는 질적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는 데서 공장일꾼들의 참신한 조직정치사업은 언제나 대중의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힘의 원천으로 되고 있다.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공장 일꾼들은 들끓는 생산현장에서 들어가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대중의 열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은 어렵고 복잡한 부속품과공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하면서 수직계의 발효장크와 밀폐스크류를 비롯한 현대화장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다.

인민에 대한 헌신적투쟁을 지니고 조선장의 고유한 맛을 살리면서 질 좋은 기초식품을 더 많이 생산해내려는 장직장 노동자, 기술자들의 투쟁열의는 그대로 생산선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직장에서는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드는것을 질제고의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내세우고 종합업원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2작업반원들은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면서 발효와 숙성 등 모든 공장에서 책임성을 높이 발휘하여 조선장의 고유한 맛과 색깔을 더 잘 살려나가고 있다.

한편 1, 3작업반원들도 간장, 된장 등 기초식품의 질제고와 생산공정의 현대화실현에 다같이 힘을 넣으면서 작업반안에 맡겨진 계획을 매달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다.

뜻깊은 올해에 인민의 기쁨이던 강산에 차던길을 걷는데서 자기들이 지닌 임무를 하는 자각한 공장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기초식품생산을 계속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나가고 있다.

박유정

대안장 공장 에서

얼마전 대안기계연합기업소에 대한 취재과정에 우리는 이곳 노동자들로부터 구역사업부장님을 통해 공급받는 장맛이 좋진다고 확실히 좋아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결코 무심해 스쳐지날수 없는 호령이었다. 여기에 갖는 사연을 알고싶어 우리는 그걸로 대안장공장을 찾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인민생활문제를 하루빨리 풀어 인민들이 실생활을 통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공장을 찾은 사연을 들은 책임기사 오형석동무는 제품의 질을 더욱 높이지면 안되겠다 하라 할일이 많다고,련합기업소종합업원들의 정기를 인민생활향상의 해인 올해에 더 많은 일을 하라는 당부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겸손하게 이야기하였다. 그의 안내로 장생산공장을 돌아보는 과정에 우리는 지난 1, 4분기와 4월엔 장생산량을 지난해보다 훨씬 늘이면서도 그 질을 높인 비결에 대하여 알수 있었다. 지난해에 장생산공정의 기술개선투쟁을 벌리면서 공장의 일꾼들과 기술자들이 주옥을 들은 것은 목자기였다. 종전설비의 부족점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과정에 흥건동무를 비롯한 기술자들은 목자기의 공기조화장치를 확실히 좋아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결코 무심해 스쳐지날수 없는 호령이었다. 여기에 갖는 사연을 알고싶어 우리는 그걸로 대안장공장을 찾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인민생활문제를 하루빨리 풀어 인민들이 실생활을 통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공장을 찾은 사연을 들은 책임기사 오형석동무는 제품의 질을 더욱 높이지면 안되겠다 하라 할일이 많다고,련합기업소종합업원들의 정기를 인민생활향상의 해인 올해에 더 많은 일을 하라는 당부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겸손하게 이야기하였다. 그의 안내로 장생산공장을 돌아보는 과정에 우리는 지난 1, 4분기와 4월엔 장생산량을 지난해보다 훨씬 늘이면서도 그 질을 높인 비결에 대하여 알수 있었다. 지난해에 장생산공정의 기술개선투쟁을 벌리면서 공장의 일꾼들과 기술자들이 주옥을 들은 것은 목자기였다. 종전설비의 부족점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과정에 흥건동무를 비롯한 기술자들은 목자기의 공기조화장치를 확실히 좋아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결코 무심해 스쳐지날수 없는 호령이었다. 여기에 갖는 사연을 알고싶어 우리는 그걸로 대안장공장을 찾았다.

얼마전 우리는 공동시설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배말 기계들을 넘쳐 수행하고있는 경원국가사이다공장을 찾았다. 우리 내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경공업혁명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경공업공정들을 만반으로 돌리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합니다.》

우리 인민들이 좋아하는 빵 천사이다가 생산되는 작업현장은 아담하였다. 병세척공정으로 부터 제품 완성공정에 이르기까지 흐름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생산공정은 크지 않은 면적이었는데도 생산과정이 한눈에 안겨졌다. 우리는 먼저 2층에 있는 사랑용역작업현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공장의 일꾼은 우리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 크지 않은이 작업장까지 찾아주시었다고 뜨거운 것이 이야기하였다.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운택하게 해주시려고 마음쓰시는 우리 장군님의 헌신의 자취가 여기에 또렷하게 새겨져있다고 생각하니 우리의 가슴도 격정으로 달아올랐다.

사랑용역작업현장은 참으로 정갈하였다.

창문을 통해 따스한 해살이

받는 제품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아담라를 노력하는 공정의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의 헌신의 모습을 그려보며 우리는 1층으로 내려갔다. 여기서는 집채같은 병세척기를 통과해 나오는 병들이 콘베이어를 타고 흐르며 잠간사이에서 완성된 제품으로 상자에 담겨지는 모습을 한눈에 볼수 있었다.

깨끗이 세척된 병들이 콘베이어를 타고 가스포화기로 들어가는 모습을 가리키며 동행한 일꾼은 뜻깊은 올해에 노동자들의 생산열의는 대단히 높아졌다고 하였다.

가스포화기를 다루는 기계공들도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고

말 좋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수양산종합식료공장에서— 본사기자 김중훈 찍음

말 좋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수양산종합식료공장에서— 본사기자 김중훈 찍음

집단의 전투력을 높여준 체육경기

고원철도분국 고원전기대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얼마전 우리가 고원철도분국 고원전기대에서 본 종합업원의 배구경기는 매우 인상적이였다.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것은 전기대 배구경기였다. 이 경기에서 전기대 배구경기팀을 통하여 높이 떨쳐진 집단의 단합과 위력에 대한 이야기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군중문화사업과 군중체육활동을 적극 벌려 어디에 가나 흥성거리고 사람들이 거마 명적력판과 신심에 넘쳐 일하고 생활해나갈도록 하여야 합니다.》

몇해전 고원전기대가 분국의 통신보상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어느 한 철도구간의 칼벨공사를 진행할 때였다. 어려운 일감을 놓고 여러차례 열린

현장회의에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총괄시키기 위한 정치사상공작을 3단계로 벌리는것과 함께 실천속에서 그 생활력과 위력을 보여준 대중체육활동을 벌리기로 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체육경기를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사업으로 여기고 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전투속보다 경기용원, 시상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돌리었다. 박근식동무를 비롯한 초급당위원회의 일꾼들이 한계 단위의 말고 내리가지 경기에 출전하도록 하고 응원도 하면서 그들이 경기에서 집단의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니 투쟁에는 혁신의 불바람이 더욱 세차게 일었다. 전투원들은 더 많은 작업과제를 맡아안고 뛰고 또 뛰었으며 새로운 기술공법들을 창안도입하여 공

소문없이 일을 해제끼는 혁신적인 일본새

현안군민이 당장전 65살을 향하여 총진군을 다그쳐나가고 있는 지금 우리 당일꾼들은 어떻게 살며 일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피현시리카르텍볼공장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을 통하여 찾아보았다. 강성상동무가 공장초급당비서시업을 시작했다는 얼마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다음부터 공장에서는 몇해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을 짧은 시간에 해제끼고 공정의 면모도 일일시키고 노동자들의 생활조건도 몰라보게 개선하였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공장초급당위원회의 일꾼들이 일거리를 끊임없이 찾아내며 때때로 밤이 따르없이 사색한 공적들을 벌려 해제끼는데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하는 사람은 사업에서 만족을 몰라야 하며 새로운 일감을 찾아 사업을 끊임없이 전개해나간다.》

공장초급당위원회가 새로운 일감들을 끊임없이 찾아내면서 공적들을 벌려 해제끼는데서 중시한 문제는 노동자들이 절실히 바라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들었었다. 초급당일꾼이 이곳에 배치되자왔을 당시 해야 할 일감이 적지 않았다.

정양소개건보수, 합숙건설, 종합적인 축산기건설, 여러 직장과 작업반의 사무실들... (어느 일감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초급당일꾼은 주관적우상을 앞세우지 않고 노동자들속으로 들어갔다. 그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허물없이 대화를 해보니 급한것이

피현시리카르텍볼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합숙건설문제였다.

그런데 당장 합숙을 건설하고 보니 초거울이었다. 일꾼들은 불에 나가 건설을 시작하였으면 하였다.

하지만 초급당일꾼은 일단 결심한 일이고 중요하라는 노동자들이 절박하게 바라하는 일이기때문에 미룰수 없다고 하면서 지체없이 합숙건설에 앞장섰다. 초급당일꾼의 이런 일일신시키고 노동자들의 생활조건도 몰라보게 개선하였다.

이후 피현시리카르텍볼공장은 그만한 공정의 일꾼들이 일관되게 팔을 걷고 뛰어들었다.

초급당일꾼들은 콩크리트혼합물이 얼지 않게 나래와 비닐박막으로 건물들 온도를 에워싸고 일감을 대량하게 벌려나갈데로 이끌었다. 그래서 착공한지 두달 남짓한 사이에 2층으로 된 합숙건물을 일떠세우고 1월 중순에 완공하여 리용할수 있게 하는 혁신을 일으켰었다.

그 과정을 통한 일꾼들과 노동자들은 무슨 일이나 마을을 단단히 먹고 달라붙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었다.

초급당위원회는 일꾼들과 노동자들의 양양된 혁명적 열의에 맞게 계획한 일감들을 순서로 정하고 3대한 공적들을 들이냈다.

정몽에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려는 공장종합업원들의 열정같은 신념이 비견 후조도 정히 세워졌다. 구내식당옆에 양어못을 침적하게 건설하고 수만마리의 새끼물고기를 넣었다. 동로 공급하며 구내식당운영에서 제기되는 고기, 알문제를 풀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며 또다

로 노동자들이며 그들의 정신력을 발달하기 위한 송풍기적인 역할은 바로 정치사업과 함께 후방사업을 앞세우는데 있다. 힘을 세우고 여기에 큰 몫을 넣었다. 그것은 초급당위원회가 처음으로 시작한 일이 합숙건설이였으며 수많은 해결된 일감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것이 노동자들의 생활을 운택하게 하기 위한 종합적인 축산기지와 태양열온실건설과 같은 일감들이라는것을 통하여도 잘 알수 있다.

자기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일감부터 총이 크게 전개하고 해결되는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에서 큰 충격을 받은 노동자들은 생산에서 보다 큰 양양을 일시키고 공정의 면모도 일일시키기 위한 사업에도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되었다.

지금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은 당장전 65살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공장을 더 잘 꾸리고 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켜갈 드높은 신심과 락판에 넘쳐 일터마다에서 기적과 위적을 떨쳐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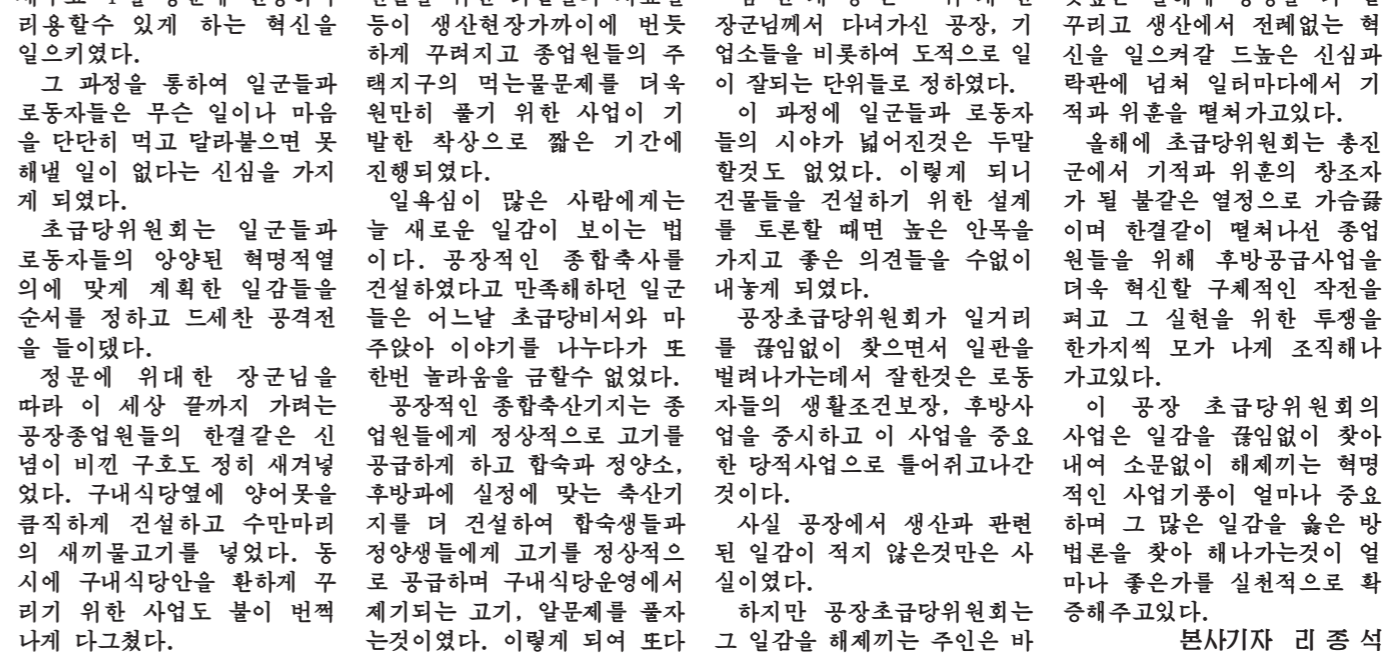
올해에 초급당위원회는 총진군에서 기적과 위적의 창조자가 될 불같은 열정으로 가슴을이며 한결같이 떨쳐나선 종합업원들을 위해 후방공급사업을 더욱 혁신한 구체적 작전을 펴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한가지씩 모가 나게 조직해나가고 있다.

이 공장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은 일감을 끊임없이 찾아내어 소문없이 해제끼는 혁명적인 사업기풍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 많은 일감을 옴은 방법론을 찾아 해나가는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실천적으로 확증해주고 있다.

본사기자 리종석



고향향을 아름답게 꾸려갈 한 마음이고 비류강호안공사를 실속있게 하고 있다. —성천군에서— 본사기자 찍음



말 좋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수양산종합식료공장에서— 본사기자 김중훈 찍음

일생 잊혀지지 않을 행복한 날들이 흐른다

만경대 소년 단 야영소에서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문화후식조건을

또 하루 야영의 날이 밝았다. 맑고 청신한 아침 대기를 깨치며 울리는 기상 나팔소리에 고요속에 물결던 통악산기슭의 만경대소년단야영소는 순간에 활기를 띤다.

야영의 창문들은 활짝 열리고 화성기에서는 노래소리가 울려나온다.

어느새 달려나왔는지 운동장에서 분단뒤로 정렬한 소년단야영생들이 노래에 맞추어 아침예조를 한다.

행복과 랑만에 설레이는 야영소의 아침.

통악산의 새날은 이렇게 아이들의 기쁨속에 밝아온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당은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에게나 간직되어있는 것이 소년단시절의 즐거움 야영생활이다.

그 기간은 비록 길지 않지만 누구나 소년단시절의 야영생활을 일생동안 정답게 추억한다.

그런수밖에 없다. 천부도 줄수 없는 사람, 이 세상 어디 가서도 누릴수 없는 생활로 하여 야영의 나날은 한 생애로 잊혀지지 않고 세월이 갈수록 그 시절을 추억하는 마음은 고마움에 뜨겁게

자란다. 야영생활을 일생동안 잊혀지지 않는 기간이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나라일을 돌보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아이들의 야영생활까지 깊은 관심을 돌려주신 어머니 수령님의 품속에서 이 나라 아이들의 즐거운 야영의 역사를 시작되었다.

학생소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없다고 하시면서 정치좋은 명승지들에 소년단야영소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하게 꾸리는데 대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르쳐 주시며 그러도 마음씨오신 어머니 수령님, 우리 수령님의 이렇듯 크나큰 사랑과 은정에 감사하며 야영소로 들어가는 길에 표불표불하면 야영생활이 좋아하지 않을수 없기때문에 길을 곧추 나아가고 세심히 가르쳐주시고 어느새 봄날에는 몸소 야영소의 지도교원들을 사랑의 한복을 안고서 영광의 길을 걸어가신 어머니 수령님이다.

자은로운 그 사랑, 뜨거운 은정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속에서 변함없이 이어

지고있다.

어머니 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있는 통악산기슭에 혁명의 오람만경대의 고귀한 이름을 달고 일떠선 학생소년들의 야영소가 은을 내도록 하기 위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돌려주신 사랑과 은정은 정면 끝이 없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당과 국가의 시책은 변함없이 이어져온 학생소년들의 야영생활은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이 펼쳐진 하나의 전설같은 화폭이다.

학생들의 야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특별히 세워진 식량, 부식물공급체계, 남다른 정성으로 야영소마당에 정답게 울리는 풍우유주의 경계화현경소리... 함으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손길이 뜨겁게 닿아있는 우리 아이들의 야영생활이다.

등산활동, 체육활동, 유람활동, 문화정서생활 등 학생소년들의 심리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진행되는 즐거운 야영생활의 하루하루는 야영생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잊을수 없는 추억으로 소중한 기억이 된다.

『따라따라』는 우리 아이들의 봄바람에 힘치게

나뉠진다.

야영소구내에 꾸려진 보트놀이장에서는 처음으로 제손에 노대를 잡아보는 나이런 학생들의 흥분을 담고 푸른 물결이 출렁인다. 등산휴식터에서는 자기 손으로 불을 피워 지는 밥을 신기함들 들여다보며 맛있게 먹는 야영생활의 사랑스러운 모습도 볼수 있다. 그런가하면 통악산 대봉마루에서는 가파로운 등산길을 정복한 야영생들의 환희에 넘친 웅성소리가 울려온다.

학생들이 야영생활을 통하여 배운 지식을 더 넓히고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다지게 되었다고 기쁨에 넘쳐 말하는 교원들, 야영소도교원들이 자기들을 위해 준비한 여러 종류의 예술소품공연이 제일 재미있었다고, 풍악산정점에서 응징화현경의 경야의 모습을 바라보니 내 조국의 수도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궁자가 가슴가득 차올랐다고 말하는 학생소년들.

야영의 나날을 마치고 돌아가게 되면 두근두근 없이 돌아갔다고 하면서 일기장에 즐거운 야영생활에 대하여 써넣는 학생들도 있다.

제비나는 보드놀이였으나 놀 줄 저울질 놀라 잠잠한 광둥던 당황함과 쓰러짐도, 야영소에서는 체육경기에서 단연 1등을 쟁취

한 자랑도, 집마다 처음하는 야영생활과정에 제가끔 갖은 교훈들도 일기장에 적힌다.

하지만 야영생활의 일기장에 하나와 같이 적히는것은 자기들의 웃음과 노래를 지켜주시고 평범한 로동자, 농민, 사무원들의 자식들인 자기들이 당과 국가의 혜택속에 즐겁고 추억깊은 야영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헌신은 고마움이다. 그리고 장군님께서 지켜주시고 빛내시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높이 받드는 앞날의 역군으로 충실히 준비해갈 굳센 결의이다.

4월도 봄명절 우리 장군님 초소의 명사를 찾아가는 길 야영을 떠나는 아이들 보며 야영장에 손저우시네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

야영생들이 부르는 노래가 봄바람에 높이 울려간다.

위대한 장군님 계시어 내 조국의 미래는 영원히 밝고 석씩하리라는 확신이 갈마드는 통악산기슭 야영소의 봄날은 노래와 더불어 더욱 화창해진다. 우리 아이들이 일생동안 잊지 않을 나날을 안고.

본사기자 윤지혜

천리마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투쟁하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211고지>를 지켜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대고조력사에는 황해제철소(당시) 로동계급이 발휘한 불굴의 투쟁정신과 영웅적위훈도 아로새겨져있다.

지난해 3월이 기업소를 찾은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황철의 로동계급은 황해제철소가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1211고지>라고 하신 어머니 수령님의 교시를 가슴깊이 새기고 언제나 철로 땅을 받들어온 영웅로동계급이라고 하시면서 전후북구건설에서 조선사람의 본래를 보여준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강성대국건설대진에서도 영예로운 승리가 되어야 한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돌이켜보면 황철의 로동계급은 영예로운 승리를 안겨준 공로를 닦고자 하여 내달렸다. 일군들은 작업복을 갈아입고 헌장으로 달려나왔고 사업로도의 현장에서 진행되었다.

기계계장에서는 몇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6천여명의 부속품들을 제작하였고 제반공들은 낮과 밤이 따로없는 전투를 벌려 당시 일년에 700여개소에 대한 설비조립을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기계의 야만적인 속도의 후과로 녹아붙고 뒤러버린 용광로가 하루가 다르게 자기의 재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송풍기부구현장에서도 불꽃튀는 전투가 벌어졌다. 김기모동무와 송풍기운전공들은 기술신비주의를 박고 마시진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할수 있는 대담한 발기를 하였으며 실제로 거듭하면서 도 신심을 잃지 않고 투쟁하여 마침내 용광로에 세찬 바람을 뿜어주게 되었다.

자력발전, 간고분투의 창조물인 황철의 용광로가 계획했던 날자를 훨씬 앞당겨

우뚇 일어섰다. 용광로의 출선구앞에 드리워있는 붉은 테프를 끊어서는 어머니 수령님을 우러르는 황철로동계급의 심장은 새로운 결심과 의지로 쇄철처럼 끓어번졌다.

황해제철소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211고지>라고 하신 어머니 수령님의 믿음울 심장에 안고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을 결사판결하여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며 그들은 더욱 단결되고 전투력은 불멸의 집단으로 성장했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명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식의 철생산방법을 완성하는 데서도 황철의 빛나는 투쟁정신을 다시금 떨쳤다. 그들은 우리 장군님께서 원하고 하시었던 무조건 된다는 의지를 안고 순수한 우리의것인 산소열법용광로의 설계를 완성해냈다.

그들은 첫 시험에서 쇠물이 아니라 슬라크가 생겼을 때에도 <슬라크 다음차례야 쇠물이야.> 하면서 신념과 락안에 넘쳐 계속 노력하여 끝내 성공하고야말았다. 우리의 연로로, 우리의 젊음으로 쌓아낸 설비에 <주철>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그들은 목매어 뛰어들었다. <어머니 수령님, 우리 식 제철방법으로 붉은 쇠물이 잘 익었습니다.>

황철의 로동계급은 이런 인건, 이런 혁명가들이었다. 수없이 단결된 무조건 된다고 수령님이 바라다면 무조건 해내고야마는 바로 이것이 강성대국의 역전 투쟁기동을 세우기 위한 황철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오늘도 황철에서는 선군시대의 천리마가 질풍같이 내달린다.

본사기자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대고조력사에는 황해제철소(당시) 로동계급이 발휘한 불굴의 투쟁정신과 영웅적위훈도 아로새겨져있다.

지난해 3월이 기업소를 찾은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황철의 로동계급은 황해제철소가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1211고지>라고 하신 어머니 수령님의 교시를 가슴깊이 새기고 언제나 철로 땅을 받들어온 영웅로동계급이라고 하시면서 전후북구건설에서 조선사람의 본래를 보여준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강성대국건설대진에서도 영예로운 승리가 되어야 한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돌이켜보면 황철의 로동계급은 영예로운 승리를 안겨준 공로를 닦고자 하여 내달렸다. 일군들은 작업복을 갈아입고 헌장으로 달려나왔고 사업로도의 현장에서 진행되었다.

기계계장에서는 몇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6천여명의 부속품들을 제작하였고 제반공들은 낮과 밤이 따로없는 전투를 벌려 당시 일년에 700여개소에 대한 설비조립을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기계의 야만적인 속도의 후과로 녹아붙고 뒤러버린 용광로가 하루가 다르게 자기의 재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송풍기부구현장에서도 불꽃튀는 전투가 벌어졌다. 김기모동무와 송풍기운전공들은 기술신비주의를 박고 마시진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할수 있는 대담한 발기를 하였으며 실제로 거듭하면서 도 신심을 잃지 않고 투쟁하여 마침내 용광로에 세찬 바람을 뿜어주게 되었다.

자력발전, 간고분투의 창조물인 황철의 용광로가 계획했던 날자를 훨씬 앞당겨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은정속에 전국각지에서 휴양소들을 새로 건설하고 이미 있던 휴양소들을 선진시대 의 요구에 맞게 개진보수하며 휴양소들을 보다 훌륭하게 휴양조건을 보강해 주기 위한 사업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인민은 당과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전국도처에 많은 휴양소들이 새로 일떠섰다.

황해북도의 여러곳에 도 인의 근로자들을 위한 휴양소들이 건설되었다. 사회주의건설을 자랑하는 서흥군 법안리에 휴양소가 훌륭히 건설된데 이어 연산군과 연안군을 비롯한 여러 군의 경치좋은 곳들에 휴양소를 새로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도안의 여러곳에 근로자들이 당과 국가의 혜택을 받으며 즐거운 문화휴식을 할수 있는 휴양기들이 새로 꾸려지게 되었다.

평양시 순안구역, 평안남도 북창군을 비롯한 각지에

현대적인 휴양소들이 건설되어 근로자들의 건강증진과 문화휴식에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휴양소개진보수사업이 계속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의 근로자들을 위한 휴양소들의 개진보수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속에 철도로동계급을 위한 5월11일휴양소가 그 면모를 일신하였다. 철도성에서는 린관부문의 건립한 협동밀에 휴양소개진사업에 힘을 집중하여 짧은 기간에 휴양소의 내외부물 새롭게 꾸리고 그 운영을 정상화할수 있는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였다.

명승지들을 비롯한 전국도처의 경치좋은 곳에 자리잡고있는 휴양소들에 대한 개진보수공사도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다. 화강석광산의 특성에 맞게 같은 규격의 조각판들로 특색있게 건설한 정양소건설을 주의깊게 바라보는 우리에게 소망 감정전동무가 하는 말이다.

우리가 먼저 들린 곳은 탁구장이었다. 거기서는 탁구경기 한창이였다.

『상철동무의 짝이치기에는 못 건디겠는걸.』

『상철동무의 방어도 만만

치않구만.』

선수들만이 아니라 응원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의 손에도 땀이 내어어있는듯... 발차기 구르는 정양생도 있었다.

우리의 입가에도 절로 웃음이 피어났다.

그런가하면 너성호실들에 있는 정양생들이 뽕놀이판앞에서 승부를 겨루느라 여념이 없었다.

알뜰하게 꾸려진 호실들에 는 하나와 같이 텔레비전수상기를 비롯한 생활비품들이 그쯘하게 갖추어져있었다.

우리에겐 정양생 로동자 동무가 말하였다. 정양생활은 휴양생활 못지않다고, 가족들도 정말 기뻐한다고, 나라에서 이런 혜택을 베풀어 주니 감사의 마음 비길대 없다고...

방산은 물론 군적으로도 소모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한층더 달린 목욕탕이 리리랄, 오락실 등을 돌아보는 우리의 가슴속에는 뜨거운것이 가득차올랐다.

당과 국가에서 정양생들에게 돌려주는 혜택은 정녕 얼마나 큰것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문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입니다.』

우리가 산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풍강오석산화강석광산 정양소마당에 들어섰을 때는 아들이 깃을 펼부름이였다.

창문마당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불빛으로 하여 정양소마당은 대낮처럼 밝았다.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마당에 울려나오고있었다.

『우리 정양소 로동자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화강석광산의 특성에 맞게 같은 규격의 조각판들로 특색있게 건설한 정양소건설을 주의깊게 바라보는 우리에게 소망 감정전동무가 하는 말이다.

우리가 먼저 들린 곳은 탁구장이었다. 거기서는 탁구경기 한창이였다.

『상철동무의 짝이치기에는 못 건디겠는걸.』

『상철동무의 방어도 만만

치않구만.』

선수들만이 아니라 응원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의 손에도 땀이 내어어있는듯... 발차기 구르는 정양생도 있었다.

우리의 입가에도 절로 웃음이 피어났다.

그런가하면 너성호실들에 있는 정양생들이 뽕놀이판앞에서 승부를 겨루느라 여념이 없었다.

알뜰하게 꾸려진 호실들에 는 하나와 같이 텔레비전수상기를 비롯한 생활비품들이 그쯘하게 갖추어져있었다.

우리에겐 정양생 로동자 동무가 말하였다. 정양생활은 휴양생활 못지않다고, 가족들도 정말 기뻐한다고, 나라에서 이런 혜택을 베풀어 주니 감사의 마음 비길대 없다고...

방산은 물론 군적으로도 소모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한층더 달린 목욕탕이 리리랄, 오락실 등을 돌아보는 우리의 가슴속에는 뜨거운것이 가득차올랐다.

당과 국가에서 정양생들에게 돌려주는 혜택은 정녕 얼마나 큰것인가.

즐거워나가는 휴양기지를

풍강오석산화강석광산 정양소에서

일본 오사까일주우호대표단 만경대방문, 여러곳 참관

【평양 5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가쿠히로하찌로 일주국교 정상화조기실현을 요 구하는 시민련대 사카공동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 오사까일주우호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교황집을 찾은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만경대일가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 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

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단장은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만경대를 방문하고 만경대일가분들의 혁명생활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대표단은 또한 주체사상탑과 인민대학습당, 평양시학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등을 참관하였다.

일본 오사까일주우호대표단 주체사상탑 참관

인민의 총복!

락량구역량정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기 사업소지배인 윤철호동무를 이렇게 부르짖었다. 거기에는 언제나 인민의 복부자라는 자각을 안고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서서 종업원들을 불러일으키며 인민을 위한 일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참관인 윤철호동무에 대한 종업원들의 사랑과 존경이 비껴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일군들은 당의 강성대국건설의 기치를 맨 앞장에서 들고 완강한 투지와 헌신성을 발휘하여 결사관철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전 윤철호동무는 구역인민회의 대의원으로서 선거되었다. 그날 그는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룰수 없었다. 어머니조국의 품속에서 자라온 자는 조국에 헌신적용을 손에 들고 먼길을 걸었다는것, 딸의 짐식구들이 따뜻한 아래목에서 잠시라도 몸을 누이고 할 때에도 한가정에 행복을 더해주기 위하여 고생복을 내뱉고 함께 수심피기를 달려 왔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인민보안원의 이름은 전례없이 높았다.

이런 훌륭한 인건들이 바로 우리 인민보안원들입니다. 정말 우리 당이 키운 인민의 보안원들이 제일입니다.

구성시 청룡리 심수옥

헌신속에 빛나는 값높은 칭호

인민의 총복!

락량구역량정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기 사업소지배인 윤철호동무를 이렇게 부르짖었다. 거기에는 언제나 인민의 복부자라는 자각을 안고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서서 종업원들을 불러일으키며 인민을 위한 일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참관인 윤철호동무에 대한 종업원들의 사랑과 존경이 비껴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일군들은 당의 강성대국건설의 기치를 맨 앞장에서 들고 완강한 투지와 헌신성을 발휘하여 결사관철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전 윤철호동무는 구역인민회의 대의원으로서 선거되었다. 그날 그는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룰수 없었다. 어머니조국의 품속에서 자라온 자는 조국에 헌신적용을 손에 들고 먼길을 걸었다는것, 딸의 짐식구들이 따뜻한 아래목에서 잠시라도 몸을 누이고 할 때에도 한가정에 행복을 더해주기 위하여 고생복을 내뱉고 함께 수심피기를 달려 왔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인민보안원의 이름은 전례없이 높았다.

이런 훌륭한 인건들이 바로 우리 인민보안원들입니다. 정말 우리 당이 키운 인민의 보안원들이 제일입니다.

구성시 청룡리 심수옥

인민의 총복!

락량구역량정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기 사업소지배인 윤철호동무를 이렇게 부르짖었다. 거기에는 언제나 인민의 복부자라는 자각을 안고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서서 종업원들을 불러일으키며 인민을 위한 일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참관인 윤철호동무에 대한 종업원들의 사랑과 존경이 비껴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일군들은 당의 강성대국건설의 기치를 맨 앞장에서 들고 완강한 투지와 헌신성을 발휘하여 결사관철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전 윤철호동무는 구역인민회의 대의원으로서 선거되었다. 그날 그는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룰수 없었다. 어머니조국의 품속에서 자라온 자는 조국에 헌신적용을 손에 들고 먼길을 걸었다는것, 딸의 짐식구들이 따뜻한 아래목에서 잠시라도 몸을 누이고 할 때에도 한가정에 행복을 더해주기 위하여 고생복을 내뱉고 함께 수심피기를 달려 왔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인민보안원의 이름은 전례없이 높았다.

이런 훌륭한 인건들이 바로 우리 인민보안원들입니다. 정말 우리 당이 키운 인민의 보안원들이 제일입니다.

구성시 청룡리 심수옥

인민의 총복!

락량구역량정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기 사업소지배인 윤철호동무를 이렇게 부르짖었다. 거기에는 언제나 인민의 복부자라는 자각을 안고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서서 종업원들을 불러일으키며 인민을 위한 일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참관인 윤철호동무에 대한 종업원들의 사랑과 존경이 비껴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일군들은 당의 강성대국건설의 기치를 맨 앞장에서 들고 완강한 투지와 헌신성을 발휘하여 결사관철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전 윤철호동무는 구역인민회의 대의원으로서 선거되었다. 그날 그는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룰수 없었다. 어머니조국의 품속에서 자라온 자는 조국에 헌신적용을 손에 들고 먼길을 걸었다는것, 딸의 짐식구들이 따뜻한 아래목에서 잠시라도 몸을 누이고 할 때에도 한가정에 행복을 더해주기 위하여 고생복을 내뱉고 함께 수심피기를 달려 왔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인민보안원의 이름은 전례없이 높았다.

이런 훌륭한 인건들이 바로 우리 인민보안원들입니다. 정말 우리 당이 키운 인민의 보안원들이 제일입니다.

구성시 청룡리 심수옥

인민의 총복!

락량구역량정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기 사업소지배인 윤철호동무를 이렇게 부르짖었다. 거기에는 언제나 인민의 복부자라는 자각을 안고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서서 종업원들을 불러일으키며 인민을 위한 일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참관인 윤철호동무에 대한 종업원들의 사랑과 존경이 비껴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일군들은 당의 강성대국건설의 기치를 맨 앞장에서 들고 완강한 투지와 헌신성을 발휘하여 결사관철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전 윤철호동무는 구역인민회의 대의원으로서 선거되었다. 그날 그는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룰수 없었다. 어머니조국의 품속에서 자라온 자는 조국에 헌신적용을 손에 들고 먼길을 걸었다는것, 딸의 짐식구들이 따뜻한 아래목에서 잠시라도 몸을 누이고 할 때에도 한가정에 행복을 더해주기 위하여 고생복을 내뱉고 함께 수심피기를 달려 왔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인민보안원의 이름은 전례없이 높았다.

이런 훌륭한 인건들이 바로 우리 인민보안원들입니다. 정말 우리 당이 키운 인민의 보안원들이 제일입니다.

구성시 청룡리 심수옥

인민의 총복!

락량구역량정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기 사업소지배인 윤철호동무를 이렇게 부르짖었다. 거기에는 언제나 인민의 복부자라는 자각을 안고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서서 종업원들을 불러일으키며 인민을 위한 일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참관인 윤철호동무에 대한 종업원들의 사랑과 존경이 비껴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일군들은 당의 강성대국건설의 기치를 맨 앞장에서 들고 완강한 투지와 헌신성을 발휘하여 결사관철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전 윤철호동무는 구역인민회의 대의원으로서 선거되었다. 그날 그는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룰수 없었다. 어머니조국의 품속에서 자라온 자는 조국에 헌신적용을 손에 들고 먼길을 걸었다는것, 딸의 짐식구들이 따뜻한 아래목에서 잠시라도 몸을 누이고 할 때에도 한가정에 행복을 더해주기 위하여 고생복을 내뱉고 함께 수심피기를 달려 왔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인민보안원의 이름은 전례없이 높았다.

이런 훌륭한 인건들이 바로 우리 인민보안원들입니다. 정말 우리 당이 키운 인민의 보안원들이 제일입니다.

구성시 청룡리 심수옥

독자의 편지

<인민의 보안원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는 구성시 청룡리에서 살고있는 평범한 공민의 한사람입니다.

제가 편을 들게 된것은 한 인민보안원의 아름다운 소행을 찾았다고는 전일지 소식은 충동때문입니다.

지난 1월말 저를 출가한 막내딸을 급히 만날 일이 있어 열차에 올랐습니다. 밤이 깊어 서야 택양역에 내린 저의 마음속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강추위속에서 생소한 20리 밤길을 걸어야 하는데다가 갑자기 고열이 나기 시작했는지라. 이때 한 인민보안원이 저에게 다가와 사연을 묻더니 저를 부축하여가지고 자기

집으로 향하는것이였습니다.

그 인민보안원은 자기 집의 따뜻한 아래목에 자리를 펴고 저를 눕히더니 제 집에 온것처럼 생각하라고, 자기가 딸을 찾았다고 하면서 집을 나서신것이였습니다. 강추위가 휩쓸는 한겨울의 깊은 밤 남을 위해 웃으며 방길을 떠나는 그 인민보안원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야 딸을 데리고 나타난 인민보안원의 온몸은 풍뎠 열이있었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흘러넘쳤습니다.

저는 딸을 통하여 그 인민보안원이 20리 밤길을 걸어 딸

이 살던 곳에 달려갔다 이사올 줄을 갔다는것을 알고는 또다시 딸의 새 조수가 친척 촌리를 손에 들고 먼길을 걸었다는것, 딸의 짐식구들이 따뜻한 아래목에서 잠시라도 몸을 누이고 할 때에도 한가정에 행복을 더해주기 위하여 고생복을 내뱉고 함께 수심피기를 달려 왔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인민보안원의 이름은 전례없이 높았다.

이런 훌륭한 인건들이 바로 우리 인민보안원들입니다. 정말 우리 당이 키운 인민의 보안원들이 제일입니다.

구성시 청룡리 심수옥

인민의 총복!

락량구역량정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기 사업소지배인 윤철호동무를 이렇게 부르짖었다. 거기에는 언제나 인민의 복부자라는 자각을 안고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서서 종업원들을 불러일으키며 인민을 위한 일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참관인 윤철호동무에 대한 종업원들의 사랑과 존경이 비껴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일군들은 당의 강성대국건설의 기치를 맨 앞장에서 들고 완강한 투지와 헌신성을 발휘하여 결사관철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전 윤철호동무는 구역인민회의 대의원으로서 선거되었다. 그날 그는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룰수 없었다. 어머니조국의 품속에서 자라온 자는 조국에 헌신적용을 손에 들고 먼길을 걸었다는것, 딸의 짐식구들이 따뜻한 아래목에서 잠시라도 몸을 누이고 할 때에도 한가정에 행복을 더해주기 위하여 고생복을 내뱉고 함께 수심피기를 달려 왔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인민보안원의 이름은 전례없이 높았다.

이런 훌륭한 인건들이 바로 우리 인민보안원들입니다. 정말 우리 당이 키운 인민의 보안원들이 제일입니다.

구성시 청룡리 심수옥

인민의 총복!

락량구역량정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기 사업소지배인 윤철호동무를 이렇게 부르짖었다. 거기에는 언제나 인민의 복부자라는 자각을 안고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서서 종업원들을 불러일으키며 인민을 위한 일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참관인 윤철호동무에 대한 종업원들의 사랑과 존경이 비껴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일군들은 당의 강성대국건설의 기치를 맨 앞장에서 들고 완강한 투지와 헌신성을 발휘하여 결사관철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전 윤철호동무는 구역인민회의 대의원으로서 선거되었다. 그날 그는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룰수 없었다. 어머니조국의 품속에서 자라온 자는 조국에 헌신적용을 손에 들고 먼길을 걸었다는것, 딸의 짐식구들이 따뜻한 아래목에서 잠시라도 몸을 누이고 할 때에도 한가정에 행복을 더해주기 위하여 고생복을 내뱉고 함께 수심피기를 달려 왔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인민보안원의 이름은 전례없이 높았다.

이런 훌륭한 인건들이 바로 우리 인민보안원들입니다. 정말 우리 당이 키운 인민의 보안원들이 제일입니다.

구성시 청룡리 심수옥

인민의 총복!

락량구역량정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기 사업소지배인 윤철호동무를 이렇게 부르짖었다. 거기에는 언제나 인민의 복부자라는 자각을 안고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서서 종업원들을 불러일으키며 인민을 위한 일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참관인 윤철호동무에 대한 종업원들의 사랑과 존경이 비껴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일군들은 당의 강성대국건설의 기치를 맨 앞장에서 들고 완강한 투지와 헌신성을 발휘하여 결사관철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전 윤철호동무는 구역인민회의 대의원으로서 선거되었다. 그날 그는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룰수 없었다. 어머니조국의 품속에서 자라온 자는 조국에 헌신적용을 손에 들고 먼길을 걸었다는것, 딸의 짐식구들이 따뜻한 아래목에서 잠시라도 몸을 누이고 할 때에도 한가정에 행복을 더해주기 위하여 고생복을 내뱉고 함께 수심피기를 달려 왔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인민보안원의 이름은 전례없이 높았다.

이런 훌륭한 인건들이 바로 우리 인민보안원들입니다. 정말 우리 당이 키운 인민의 보안원들이 제일입니다.

구성시 청룡리 심수옥

인민의 총복!

락량구역량정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기 사업소지배인 윤철호동무를 이렇게 부르짖었다. 거기에는 언제나 인민의 복부자라는 자각을 안고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서서 종업원들을 불러일으키며 인민을 위한 일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참관인 윤철호동무에 대한 종업원들의 사랑과 존경이 비껴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일군들은 당의 강성대국건설의 기치를 맨 앞장에서 들고 완강한 투지와 헌신성을 발휘하여 결사관철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전 윤철호동무는 구역인민회의 대의원으로서 선거되었다. 그날 그는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룰수 없었다. 어머니조국의 품속에서 자라온 자는 조국에 헌신적용을 손에 들고 먼길을 걸었다는것, 딸의 짐식구들이 따뜻한 아래목에서 잠시라도 몸을 누이고 할 때에도 한가정에 행복을 더해주기 위하여 고생복을 내뱉고 함께 수심피기를 달려 왔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인민보안원의 이름은 전례없이 높았다.

이런 훌륭한 인건들이 바로 우리 인민보안원들입니다. 정말 우리 당이 키운 인민의 보안원들이 제일입니다.

구성시 청룡리 심수옥

인민의 총복!

락량구역량정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기 사업소지배인 윤철호동무를 이렇게 부르짖었다. 거기에는 언제나 인민의 복부자라는 자각을 안고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서서 종업원들을 불러일으키며 인민을 위한 일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참관인 윤철호동무에 대한 종업원들의 사랑과 존경이 비껴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일군들은 당의 강성대국건설의 기치를 맨 앞장에서 들고 완강한 투지와 헌신성을 발휘하여 결사관철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전 윤철호동무는 구역인민회의 대의원으로서 선거되었다. 그날 그는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룰수 없었다. 어머니조국의 품속에서 자라온 자는 조국에 헌신적용을 손에 들고 먼길을 걸었다는것, 딸의 짐식구들이 따뜻한 아래목에서 잠시라도 몸을 누이고 할 때에도 한가정에 행복을 더해주기 위하여 고생복을 내뱉고 함께 수심피기를 달려 왔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인민보안원의 이름은 전례없이 높았다.

이런 훌륭한 인건들이 바로 우리 인민보안원들입니다. 정말 우리 당이 키운 인민의 보안원들이 제일입니다.

구성시 청룡리 심수옥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통하여 환자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방법을 신속정확히 대책해주고있다. -김진우병원에서- 본사기자 적음

현대연합강화는 통일운동활성화의 기본요구

올해공동사설에는 온 민족의 단합을 조국통일의 결정적담보이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현대연합을 강화하여 조국통일운동을 발전시켜나간다고 지적되어있다. 현대연합의 강화로 조국통일운동을 발전시킬데 대한 공동사설의 이 사상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변영을 이룩할데 대한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동포들은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의 숭고한 리념을 안고 래왕과 접촉, 대화와 조직적인 현대연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현대연합의 강화는 민족의 대단결과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갈라진 민족의 현실에 다시 있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다. 민족이 화합하고 단결하면 그것이 곧 조국통일인 것이다. 통일운동의 성패는 전적으로 우리 민족의 단합여부에 달려있다.

은 겨레가 조국에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하나로 굳게 뭉쳐 거족적인 투쟁으로 통일운동을 발전시킬 때만이 세기적수명인 조국통일을 이룩할수 있다. 비록 사상과 리념, 정전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 대화와 협력으로 현대연합을 강화해야 할 때 서로의 리해와 신뢰를 두터이 하고 민족공존의 목적을 위하여 뜻과 힘을 합칠수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마음을 합치고 그에 기초하여 현대연합을 강화한다면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큰

본문제가 해결되게 되며 그렇게 되면 공방의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수 있다.

력사적인 6. 15 공동선언의 발표 후 우리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전민족의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온 과정에 이룩한 성과들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해외의 각계 통일운동단체들과 인민들은 6. 15와 8. 15를 비롯한 중요계기들에 전민족적인 통일행사를 성대히 진행하고 평양과 금강산에서 계급, 계층별통일행사들도 다양하게 벌어졌다. 한편 6. 15민족공동

위원회를 모체로 현대연합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면서 통일운동에 적극 활성화하였다. 이 과정에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북과 남은 여러 분야에 걸친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를 활발히 진행할수 있었다. 이러한 현실은 은 겨레의 가슴마다에 민족이 힘과 의지를 합칠 때 조국통일과 민족변영을 일만든지 이룩할수 있다는 확신을 얻어주었다.

은 겨레가 통일애국의 힘과 열정을 하나로 모아 현대연합과 공동보조, 공동행동을 취해나갈 때 통일위업수행에 보다 큰 진전을 이룩할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바 없다.

현대연합의 강화는 조성된 현재세의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 북과 남의 통일을 중단단체들사이의 래왕과 접촉, 대화와 협력을 가로막고 조국통일운동을 말살하려는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고있다. 보수세당은 그 무손 《안전보장과 공공질서, 공공복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느니, 《북측의 의도에 말려들수 있다.》느니 하는 따위의 만치 않은 구실을 불어가며 북과 남의 통일운동단체들사이

의 래왕과 접촉을 악랄하게 가로막고 있다.

최근 괴뢰들이 5. 1절북남노동자 통일행사를 위한 우리와 남조선의 민주노조, 로총판계자들의 실무접촉을 파탄시킴으로써 행사가 진행될수 없게 한것은 그 대표적사례이다. 이것은 보수세당이 민간통일운동을 말살하고 북과 남의 각계 단체들의 조국통일을 위한 현대연합을 방해하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파쇼파들은 반민족적이면 반통일적인 악법인 《보안법》을 휘둘러 조국통일법민족연합 남측분부와 6. 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통일애국단체들과 그 성원들을 《리적단체》로, 《친북파괴세력》으로 몰아 가혹한 탄압을 가하고있다. 민족성원들의 광범한 현대연합과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는 모든 움직임을 탄압 말살하려는 남조선반통일세력의 기도는 그들이 북남관계문제를 저들의 독점물로 만들고 기간간담회를 철저히 배제하며 동족사이의 소소한 협력과 교류사담마저 차단한데서 더욱 날날이 드러나고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이바지하고 북남관계개선을 다지기 위해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 기초하여 민간단체들이 진행하는 자원적인 사업마저 가로막으면서 북남대결을 격화시키는 남조선전통세력의 책동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성원들의 대중적인 현대연합에 큰 지장을 주고있다.

현실은 남조선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방해책동을 애국력량의 단결된 위력으로 단호히 저지, 분쇄하고 조국통일을 통일화해를 더욱 다그쳐나가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애국력량이 자주통일, 평화변영의 기치밑에 굳게 단합하고 현대해나가는

여기에 안락의 분열주의세력의 그 어떤 도둑도 물리치고 민족주의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근본비결이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래왕과 접촉, 대화와 현대연합을 적극 실현하면서 조국통일운동을 부단히 강화해나간다고 북과 남의 각계 단체들의 조국통일을 위한 현대연합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적극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양양인 민족단합의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키며 단합실현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전민족의 단합은 온 겨레가 통일애국의 일념을 안고 현대연합을 적극 도모하고 조직적결속을 강화해나가는 과정에 실현된다.

북과 남, 해외의 통일운동단체들과 각계각층 동포들은 전민족적인 통일운동대기인 6. 15민족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현대연합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한다.

해외의 각계각층 민족주의의 애국력량으로 굳게 단합하여 현대연합을 강화하고 공동행동을 적극 취해나갈 때 그 어떤 반통일책동도 짓부셔버릴수 있다. 온 민족의 단결된 힘과 지혜, 뜨거운 애국의 마음에서 떠날수 없는 자주통일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필승의 신심2높이 통일운동에서 현대연합을 강화하고 조국통일을 통일화해해나감으로써 자주통일, 평화변영의 새 아침을 반드시 앞당겨오야말로 것이다.

심철영

평화안 피정령을 담보하는 선군정치

천만대적의 포위와 위협속에서도 민족의 존엄을 지켜주고 평화변영의 미래를 담보하는 위대한 선군정치를 펼쳐시는 경에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감동깊은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하느님에게 매일과 같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달라고 기도들 드려온 했는데 정말 어리석었다. 빌어서 오는 평화가 아니고 구걸로 막을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느님이 아니라 인간의 선군정치와 군사적억제력이 담보해준다. 이 땅의 평화를 바라는 교인들이라면 마땅히 하느님을 숭상하기 전에 먼저 북의 선군정치를 믿고 따라야 한다.》**

남조선각계층의 이 진정한 인터넷을 통해 더욱 열렬하게 분출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어느 한 인터넷에서 선군정치와 관련한 론가 활발히 벌어졌다. 통일운동가들은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선군정치가 아니었다면 조선반도는 이미 전란으로 완전해 폐허가 되고 우리 민족은 전쟁의 희생자가 되었을것이다.》, 《함으로 선군정치는 이북만이 아니라 우리 이남민중도 포함한 겨레모두의 생존을 지켜주고 민족의 미래를 담보하는 애국애족의 정치, 평화의 보람이다.》 등의 글들을 올려 사법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이밖에도 남북공동선언실천대, 《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단체들중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장군님께서 필승불패

수되고있는것은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제일의 국사로 내세우게시기때문이다.》라고 뜨겁게 말하였다. 대우에서 나는 종교인 박인걸은 교인들앞에서 이렇게 격찬하였다. **《지금까지 하느님에게 매일과 같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달라고 기도들 드려온 했는데 정말 어리석었다. 빌어서 오는 평화가 아니고 구걸로 막을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느님이 아니라 인간의 선군정치와 군사적억제력이 담보해준다. 이 땅의 평화를 바라는 교인들이라면 마땅히 하느님을 숭상하기 전에 먼저 북의 선군정치를 믿고 따라야 한다.》**

남조선각계층의 이 진정한 인터넷을 통해 더욱 열렬하게 분출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어느 한 인터넷에서 선군정치와 관련한 론가 활발히 벌어졌다. 통일운동가들은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선군정치가 아니었다면 조선반도는 이미 전란으로 완전해 폐허가 되고 우리 민족은 전쟁의 희생자가 되었을것이다.》, 《함으로 선군정치는 이북만이 아니라 우리 이남민중도 포함한 겨레모두의 생존을 지켜주고 민족의 미래를 담보하는 애국애족의 정치, 평화의 보람이다.》 등의 글들을 올려 사법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이밖에도 남북공동선언실천대, 《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단체들중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장군님께서 필승불패

수되고있는것은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제일의 국사로 내세우게시기때문이다.》라고 뜨겁게 말하였다. 대우에서 나는 종교인 박인걸은 교인들앞에서 이렇게 격찬하였다. **《지금까지 하느님에게 매일과 같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달라고 기도들 드려온 했는데 정말 어리석었다. 빌어서 오는 평화가 아니고 구걸로 막을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느님이 아니라 인간의 선군정치와 군사적억제력이 담보해준다. 이 땅의 평화를 바라는 교인들이라면 마땅히 하느님을 숭상하기 전에 먼저 북의 선군정치를 믿고 따라야 한다.》**

김현철

의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세력의 도전을 제압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새시대를 열어주시는데 대한 내용의 글들을 연이어 게재하여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남조선의 한 방송은 《지금 우리 민족속에서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고 통일변영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감사의 정이 더욱 깊어지고있다.》라고 평하였다.

통일운동가들과 대학생들이 마련한 《이북의 선군정치와 그 의미》라는 주제의 토론회연단에 나선 어느 한 퇴직교수는 청중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정말 선군정치야말로 얼마나 고마운 정치인가. 우리 민족은 당연히 선군정치로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고 이 땅의 평화를 수호해주시는 김정일장군님위원장님께 존경을 표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애국애족의 참정치는 선군정치를 받들고 따르는 길에 조국통일, 민족의 패일이 기약되어있다.》**

21세기정치학연구모임의 한 성원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정녕 이북의 선군정치는 우리 민족을 자주와 존엄의 참살을 누리게 해주는 은혜로운 정치이다. 세상에서 총대를 치음으로 행운의 보상으로 만든 선군대양을 모시기 위하여 우리는 선군복은 영원무궁할 김정일복이다. 우리모두 북한은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일심으로 받들자.》**

김현철

《보안법》 철폐를 주장

최근 남조선각계층에서 파쇼악법 《보안법》의 철폐를 주장하는 기운이 고조되고 있다.

다가오는 《지방자치제선거》를 계기로 대대적인 폭압분위기를 조성하며 통일운동인사들과 진보단체성원들, 청년학생들에 대한 탄압소동에 광분하고있는 괴뢰세력의 망동에 격분한 남조선각계층은 《보안법》의 악랄성과 파쇼적본성을 발가놓으며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있다.

6. 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파쇼악법 《보안법》에 의한 탄압이 날로 광기를 부리고있는것은 독재가 부활되고 민주화가 여지없이 짓밟히는 남조선의 현실을 그

대로 반영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인터넷방송 《민중의 소리》는 문명을 통해 최근 방송정책악동, 일본의 독도강탈행위 등에 대한 굴욕적대도, 《4대강정비》공사강행 등으로 막대한 골목에 빠진 역도페달이 위기에 처해나가고 이 악법을 휘두르며 파쇼폭압에 미쳐날뛰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조국통일법민족연합 남측분부는 파쇼당국이 반민족적책동을 비판하는 세력들을 《좌파》로 몰아대며 못해 북의 현실에 대해 말한것을 두고 그 무손 《찬양》이니 뽀니 하며 폭압의 도수를 높이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식대로 한다면 《보안법》 위반으로

적탄압을 강화하고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당국이 공지에 몰려마지못함을 몰아치고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보인것이 다름없다고 성명을 비난하였다. 성명은 당국 민심인 《정경》을 반드시 심판할 의지에 넘쳐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당국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력대 독재자들이 썩먹던 수법을 그대로 되풀이하고있다고

적탄압을 강화하고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당국이 공지에 몰려마지못함을 몰아치고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보인것이 다름없다고 성명을 비난하였다. 성명은 당국 민심인 《정경》을 반드시 심판할 의지에 넘쳐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당국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력대 독재자들이 썩먹던 수법을 그대로 되풀이하고있다고

적탄압을 강화하고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당국이 공지에 몰려마지못함을 몰아치고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보인것이 다름없다고 성명을 비난하였다. 성명은 당국 민심인 《정경》을 반드시 심판할 의지에 넘쳐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당국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력대 독재자들이 썩먹던 수법을 그대로 되풀이하고있다고

적탄압을 강화하고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당국이 공지에 몰려마지못함을 몰아치고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보인것이 다름없다고 성명을 비난하였다. 성명은 당국 민심인 《정경》을 반드시 심판할 의지에 넘쳐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당국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력대 독재자들이 썩먹던 수법을 그대로 되풀이하고있다고

반대파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

남조선전통세력이 다가오는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정치적반대파들에 대한 탄압과 박애에 열을 올리고있다. 보수세당은 비렬하게도 반대파세력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들을 정치적으로 매장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제선거》국면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돌려세우려고 온갖 술책을 다 쓰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얼마전 괴뢰경찰은 이젠 《정경》시기에 《지방자치제선거》를 한다고 하면서 한명씩을 어느 한 기업가로부터 많은 돈을 부정적으로 받아먹었다고 하면서 그를 기소하였다. 그런데 재판에서는 그가 돈을 받았다는 근거가 부족했으므로 그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전세력의 배후조종에 따라 야당인사를 기어이 창부수에 넣어넣을 심산으로 침부수에 나선것을 점철해들은 개교수들이 하였다.

지금 남조선전통세력은 지난 2년간 민심을 짓밟으며 반역적책동을 강행시하여 인민들의 자주와 분도, 타도의 대상이 되고있다. 현 상태로 나간다면 《지방자치제선거》에서 야당세력에 여지없이 패할수밖에 없는것이 그들의 공방한 처지이다. 이로부터 보수세당은 음모적방법으로 《선거》에서 기본적으로 필수이

는 주요야당인사들을 몰아메치는데 나섰다. 보수세당의 《야당후보추진기공작》의 기본대상의 하나가 얼마전 서울시장후보를 놓고볼 때 그가 기업가에게서 《공기업사장명명청탁》과 함께 5만\$을 빌물로 받은것이 분명해졌다고 하면서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 기업가가 돈을 한명에게 직접 주었다고 했다가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하는 등 그의 진술이라는것이 일관성이 없이 오락가락하고 머구기 현장에서 한명씩이 돈을 받는것을 받았다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결국 한명씩을 어떤 기회에 어떻게 하나 제껴야 한다는 조바심에서 특출한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재판관들을 음모적으로 되려 조를 때웠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신문 《한겨레》는 《정치적합법대기 급급하다》만민단 당한 《부실검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이 내세운 근거가 빈약하기 짝이 없어 도저히 유죄의 증거로 삼기 힘들다.》고 하면서 당국의 시너노릇을 하는 검찰체 거러들을 비난하였다.

검찰을 내세워 야당세력에게 타격을 가하려고 날뛰던 보수세당은 그만 매사해지고 각계의 조소와 규탄의 대상이 되

었다. 한명씩의 무죄판결을 계기로 민주당은 《지방자치제선거》를 노린 보수당국의 비렬한 속심이 확인되 드러났다고 규탄하면서 집권자의 사과와 검찰수사증단을 강력히 요구해나갔다. 《한나라당》내에서도 한명씩에 대한 검찰수사가 지나친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보수세당은 그야말로 제가 파놓은 함정에 제가 빠지는 경이 되고말았다.

한명씩에 대한 검찰수사와 재판관들은 남조선전통세력이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정치적반대파들을 제거하기 위해 벌려놓은 음모의 일단을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선거》가 다가오면서 그런 놀음에 더욱 기를 쓰고 매달리고있다. 그러나 보수세당은 그 어떤 도략과 음모로써도 이미 기울어진 형세를 바로잡을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지방자치제선거》에서 시대의 요구와 민심의 지향에 악랄하게 역행하는 보수세당을 기어이 심판할 의지에 넘쳐있다.

수령속에 빠진 자의 운명은 수령법의 사람에게 달려있다. 인민을 등진 남조선전통세력은 이제는 고스란히 민심의 심판을 받아 수령법에 잠겨버리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본사기자 송영석

당국의 폭압책동을 규탄

남조선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4월 30일 진보적세력에 대한 폭압을 강화하는 괴뢰당국의 발악적책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당국이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폭압책동을 대폭 늘리는데 기초하여 최근에만도 수많은 통일운동가들과 청년학생들, 인터넷가입자들에게 대한 체포, 조사, 압수수색이 돌아치며 전례없이 파쇼

적탄압을 강화하고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당국이 공지에 몰려마지못함을 몰아치고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보인것이 다름없다고 성명을 비난하였다. 성명은 당국 민심인 《정경》을 반드시 심판할 의지에 넘쳐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당국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력대 독재자들이 썩먹던 수법을 그대로 되풀이하고있다고

적탄압을 강화하고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당국이 공지에 몰려마지못함을 몰아치고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보인것이 다름없다고 성명을 비난하였다. 성명은 당국 민심인 《정경》을 반드시 심판할 의지에 넘쳐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당국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력대 독재자들이 썩먹던 수법을 그대로 되풀이하고있다고

적탄압을 강화하고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당국이 공지에 몰려마지못함을 몰아치고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보인것이 다름없다고 성명을 비난하였다. 성명은 당국 민심인 《정경》을 반드시 심판할 의지에 넘쳐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당국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력대 독재자들이 썩먹던 수법을 그대로 되풀이하고있다고

적탄압을 강화하고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당국이 공지에 몰려마지못함을 몰아치고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보인것이 다름없다고 성명을 비난하였다. 성명은 당국 민심인 《정경》을 반드시 심판할 의지에 넘쳐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당국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력대 독재자들이 썩먹던 수법을 그대로 되풀이하고있다고

적탄압을 강화하고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당국이 공지에 몰려마지못함을 몰아치고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보인것이 다름없다고 성명을 비난하였다. 성명은 당국 민심인 《정경》을 반드시 심판할 의지에 넘쳐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당국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력대 독재자들이 썩먹던 수법을 그대로 되풀이하고있다고

적탄압을 강화하고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당국이 공지에 몰려마지못함을 몰아치고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보인것이 다름없다고 성명을 비난하였다. 성명은 당국 민심인 《정경》을 반드시 심판할 의지에 넘쳐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당국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력대 독재자들이 썩먹던 수법을 그대로 되풀이하고있다고

적탄압을 강화하고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당국이 공지에 몰려마지못함을 몰아치고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보인것이 다름없다고 성명을 비난하였다. 성명은 당국 민심인 《정경》을 반드시 심판할 의지에 넘쳐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당국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력대 독재자들이 썩먹던 수법을 그대로 되풀이하고있다고

적탄압을 강화하고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당국이 공지에 몰려마지못함을 몰아치고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보인것이 다름없다고 성명을 비난하였다. 성명은 당국 민심인 《정경》을 반드시 심판할 의지에 넘쳐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당국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력대 독재자들이 썩먹던 수법을 그대로 되풀이하고있다고

적탄압을 강화하고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당국이 공지에 몰려마지못함을 몰아치고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보인것이 다름없다고 성명을 비난하였다. 성명은 당국 민심인 《정경》을 반드시 심판할 의지에 넘쳐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당국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력대 독재자들이 썩먹던 수법을 그대로 되풀이하고있다고

적탄압을 강화하고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당국이 공지에 몰려마지못함을 몰아치고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보인것이 다름없다고 성명을 비난하였다. 성명은 당국 민심인 《정경》을 반드시 심판할 의지에 넘쳐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당국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력대 독재자들이 썩먹던 수법을 그대로 되풀이하고있다고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사회주의진지를 철벽으로!

사회주의는 인민의 확원, 자본주의는 근로대중의 무덤

두 제도에 비끼는 판이한 현실

위대한 장군님을 대가정의 아버지로 높이 모시고 사람들 모두가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살아가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동지를 위해 자기 몸을 아끼없이 바치는 강동적인 이야기들이 무수히 꽃피고있다.

최현발전선건설 철도성령단 청년철도국대대 부중대장이었던 김창중동무에 대한 이야기 역시 그러한 이야기중의 하나이다.

지난 2월 어느날 그가 속한 중대원들이 물결결건설투를 다그치기 위하여 골진속도를 높이며서 한창 기세를 올리고있던 때였다. 갑자기 한대의 팽차가 미끄러져내리기 시작하였다. 련결고리가 빠지면서 팽차시렬에서 분리된 팽차였다. 팽차는 경사진 선로를 따라 무서운 속도로 미끄러져내려갔다. 그 순간 누군가가 《피하라! —》라고 웨치며 팽차를 맞받아내었다. 그가 바로 김창중동무였다.

평소에도 동지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동지들과 집단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나 앞장서던 그는 이처럼 위급한 순간에 자기 몸을 아끼없이 바쳐 대원들을 구원하고 희생되었다.

파원 무엇이 그로 하여금 팽차에 서슴없이 자기 몸을 던지게 하였던가. 그것은 불보다 뜨거운 인간애에 대한 사랑, 혁명적동지애였다.

한발자국만 옆으로 비켜서도 머리카락 한오리 다치지 않을수 있었지만 그는 위기일발의 순간 자기모든 동지들을 먼저 생각하였으며 하여 동지들을 위하여 제 한몸을 서슴없이 내내던졌다.

만사람의 가슴을 울려주는 바로 이런 고결한 동지적사랑이 우리 조국에 가득히 차넘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참다운 인간관계, 인간도덕의 기초이며 자기자신보다 남을 위하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는것은 인간의 고상한 도덕의리입니다.》

이 땅에 만발한 동지애의 화원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이 빛나고있는가. 그 화원속에는 머지는 수류관용 몸으로 덮여 전우들을 구원하고 장렬하게 희생된 영웅의 모습도 있고 자기 몸을 잃으면서도 이웃집단을 몰속에서

구원해낸 한 평범한 공민의 모습도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아름다운 인간사랑이 딱딱 넘치는 내 조국의 자랑한 현실을 더듬어보는 우리의 귀에는는 연연히가 취재길에서 만났던 문화성의 한 일군이 들려주던 이야기가 떠오른다.

이것이 한 나라에 갔을 때의 일이라고 한다. 어느날 그 나라 안내원은 남을 위해 자기 몸을 바치는 아름다운 소행이 활짝 꽃피는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금치 못하면서 이렇게 진정을 터놓았다고 한다.

《부럽습니다. 인간사랑의 화원에서 사는 당신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에게도 지난날 〈동지〉라는 정다운 부름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제도와 함께 그 부름도 사라져버렸습니까. 그러다나니 이제는 친혈육마저도 남치며 매정해진 세상으로 되고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자기 나라를 개인기주의가 범람하는 나라, 인간중요사상이 판을 치는 무서운 사회가 되었다고 개탄하였다고 한다.

사람들사이의 관계가 사랑과 협조가 아니라 국도의 개인리기주의에 기초하고있고 사회에 인간애에 대한 뜨거운 정이 아니라 인간중요사상이 판을 치는 세상인 바로 자본주의 사회이다.

얼마전 어느 한 나라의 출판물에는 미국의 한 대학의 녀교원이 자기와 함께 일하던 회원들을 총으로 쏘아죽인 소식이 실려 사람들을 경악케 했다. 대학의 부교수인 그 녀성은 대학교원으로서의 《중신적적권》심사를 받다가 교수회의심사에 불만을 가지고 이런 살인행위를 하였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중신적적권》을 가지 못하면 임기가 한정된 고용계약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되며 직위도 부교수에 머무르는것이 보통이라고 한다.

어느날 《중신적적권》심사를 받던 그는 자기의 의대로로 심기가 되지 않는것을 리유로 사직하여 총을 꺼내들이 판사하였다. 결국 심의장은 《살인장》으로 되고말았다.

대학교원이라는 사람까지도 이처럼 자기의 사사와 요구에 맞지 않으면 동료들을 향해 마구 총을 쏘아대며 살인행위를



도시와 농촌을 재더미로 만든 미제야수들에 대한 치수는 증오로 가슴끓인다. —중앙계급교양관에서— 최충성 찍음

높은 계급적각오를 지니도록

재령군 삼지강리에서 계급교양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농업근로자들속에서 계급적각오를 높이기 위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잘해나가고 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속에서 계급교양을 주제로 한 연회 및 연극실연회를 잘 꾸려놓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가는 한편 여러가지 계급교양적방법을 만들어놓고 교양사업을 잘하고있다. 농장의 작업반에서는 걸그

들이 군복을 입고 조국보위초소로 떠나갈 때에도 리의 일꾼들은 격심없는 계급교양모임을 열고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희생된 고향땅의 애국자들과 인민들이 남긴 절절한 당부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새기도록 하였다. 리안의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오늘날 높은 계급적각오를 가지고 썰매로 우리의 사회주의를 지키고 빛내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본사기자

희세의 령장들을 모시여 백승떨쳐온 조선인민군

별 별의 군 건설업적 건국절기념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
년에 즈음하여 캄보자, 몽골,
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인디아,
로씨야에서 토론회, 강연회,
컨선모임, 영화감상회가 4월
22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
에 진행되었다.

행사장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선군령도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 강성
대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
되어있었다.

캄보자수상사무국, 몽골 주제
사상-선군사상연구협회, 민주
공화국 진정한 루몰바주의에국
당, 민주공화국-조선친선 및
연대성원회, 에티오피아청년주
체사상연구위원회, 인디아의정
책연구소, 로씨야 《메르쿠리》
회사 인사들과 군중이 행사에
참가하였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조선
의 총대》, 《강성대국의 불보
라》, 《이 세상 끝까지 따르
렵니다》, 《내가 본 나라》를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
영되었다.

캄보자국무상은 토론회와
영화감상회에서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시고
선군의 기치를 나라의 전만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기하기 위한 투
쟁에서 반드시 큰 성과를 달성

조선인민군은 나라와 민족
의 수호자도뿐 아니라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기둥으로, 경제
건설에서 비약과 전진의 돌파
구를 열어나가는 전초병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존경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군건설업적은
역사에 길이 아로새겨질것이다.
에티오피아청년주체사상연구
위원회 에카지부소스 책임자는
컨선모임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성불멸의 주제사상을 창시
하신데 대하여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독창적인 선군정치
로 우리 인민을 강성대국건설
에로 힘있게 이끌고계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민주공화국 진정한 루몰바주의
의에국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강연회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업적과 조국해방업적, 전
군업적을 열렬히 격찬하고 다
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일 조선인민군은
오늘날의 조선인민의 손길에 현대
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 강
력한 핵억제력을 갖춘 무적의
대대로 자라났다.

《령상들의 손길아래 백승의 78년》

브라질 단재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년에 즈음하여 브라질조선
친선협회에서 4월 25일
《령상들의 손길아래 백승의
78년》이라는 제목으로 기념
발행예를 발행하였다.

블레쥔은 글에서 다음과 같
이 지적하였다.
조선인민군이 걸어온 78년
은 회세의 령장들을 모시여 승
리와 영광을 아로새겨온 력
사라고 할수 있다.
조선인민군의 창건자는
김일성주석이다.

블레쥔 발행
조선이 일제에게 군사적으로
강점되었던 때인 1932년
8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이 선포되었다.

이때부터 조선에서 진정한
혁명투쟁의 력사가 시작되었
으며 조선인민은 무장투쟁을
주류로 하여 조국해방업적을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게 되었다.

항일무장투쟁은 조선인민이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
도 없는 조건에서 강대한 일본
군대와 맞서 싸운 준엄하고

고난의 투쟁이었다.
항일전의 나날 김일성주석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백철불굴
의 신념과 의지, 평항한 유격
전술과 전법으로 적들을 격멸
소탕하는 위대한 무장력으로
강화하시는데 한련 광범한 대중
과 혈연적으로 결합하여 전민
족을 반일투쟁으로 조직동원하
는 정치대도로 키우시었다.

그리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은
전반적조선혁명을 새로운 양상
으로 이끌어가는 수령부대로
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
할수 있었으며 마침내 1945
년 8월 조국해방업적을 실현하
게 되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후 조
성된 어렵고 복잡한 정세속
에서도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무
력적인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
시키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
시었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
은 미제의 침략으로 인한 조국
해방전쟁에서 자기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주석께서는 사람중심의 군사
사상에 기초하여 군인대중의 사
상정신적위력을 최대한으로 발
양시키면서 독창적인 전략전술
과 전법들로 인민군대의 작전과
전투를 현명하게 조직명도하
시킴으로써 조선인민군이 수적으로
나 기술적으로 엄청난 우세한
적에 대항하여 싸움으로써

블레쥔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 세기 90년대에 선군정치
방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여서
군력강화의 새로운 전선의 길
을 열어놓으시으로써 조선인민
군이 사상의 강군으로, 무적불
승의 강군으로 되었으며 조국
보위뿐 아니라 사회주의강성대
국건설에서 돌파구를 열어나
가는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블레쥔은 78년 조선인민군
이 걸어온 78년의 력사는
회세의 령장들을 모시여 제국
주의강점들과 대결하여 편진
편승하며 자주, 독립, 사회주의
의를 수호하고 빛내여온 승리와
영광의 력사이다. 회세의 령
장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조선인민군은 앞으로도 백승의
력사만을 새겨갈것이다라고 강조
하였다.

본사기자

우리 나라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찬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
민보건법발 30돐에 즈음하
여 브라질신문 《오라도 보
보》 4월 17일부가 《조선
과 미국, 두 보건제도의 판이
한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우
리 나라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찬양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예방과 치료
에서 국민적특혜는커녕 보건업
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되고있
는 미국의 한심한 보건제도를
비난하고 그러나 조선에서는
정부가 인민들에 대한 보건사
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
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
였다.

얼마전 조선에서는 인민보건법
발표 30돐을 맞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은 김일성주석께서
마련해주시었다.

조선에서 병치료를 모든 사
람들에게 있어서 무료로이다.
국가가 예방과 보건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들, 모든
형태의 보건치료사업을 책임지
고있으며 매 사람에게 필요되
는 각종 약품들도 다 공급하
고있다.
이 모든것이 법으로 규정되
여있고 인민들은 돈 환론 내지
않고 병을 예방하고 치료한다.
조선인민은 인민보건법이 가
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인민보건법발표 30돐에
 즈음하여 우리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하신 력사적인 언설 《인민
보건법을 철저히 관철하라》를
뒤세기까지 가장 우월한 보건
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공민들
을 다시금 깊이 간직하고있는
데 대하여 전하고 조선의 무상
치료를는 인민들의 건강을 증
진시키고 실제로 인민들이 병
에 걸려 치료 받아야 할 때
그들을 적극 보호해주는 이 나
라 정부의 인민적시책의 정당
성을 뚜렷이 보여준다고 강조
하였다.

미국인의 핵 위협 책동을 단죄
이란외국사법사회 위원장 아
야말라프 씨에 따라러시아가 4
월 25일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책동을 단죄하였다.

최근 미행정부가 《핵태세검
토보고서》라는 데서 이란에 핵
선제공격을 가할 기도를 로물
적으로 드러내보인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무분별한것으로
탄탄하였다.

경제 발전을 다그칠것을 호소
싱가포르수상 리 시엔 퉁이
4월 30일 5.1절을 맞으며
발표한 서한에서 경제발전을 더
다그칠것을 호소하였다.

미국대통령보좌관의 입국을 거부
트리니다드 토바고정부가 최
근 미국대통령보좌관의 입국을
거부하기로 하였다.

일본의 반인륜적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낼것이다
일본의 반인륜적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낼것이다

일본의 반인륜적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낼것이다
일본의 반인륜적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낼것이다

일본의 반인륜적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낼것이다
일본의 반인륜적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낼것이다

여러 나라에서 시위와 집회

팔레스티나의 가지지대에
서 1일 이스라엘의 분쇄책동
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수백명의 팔레스티
나로동자들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팔레스티나
국기와 이스라엘의 분쇄책동
을 규탄하는 글들이 쓰여진 구호
띠를 들고 행진하면서 가지지
대에 대한 분쇄를 단정 해제
할것을 이스라엘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일본의 반인륜적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낼것이다
일본의 반인륜적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낼것이다

일본의 반인륜적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낼것이다
일본의 반인륜적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낼것이다

김정일동지는 예술의 대가입니다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 단장 겸 수석지휘자가 높이 칭송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파벨 오브스탄니코프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 단장 겸
수석지휘자는 2일 조선중앙
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공연하는 영광을 지니
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의
단독공연과 합동공연을 보아주
시었다.
그 감격을 무슨 말로 표현했
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문학예술발전에 커다란 관심
을 돌리고계시는 그이의 품모
에 감동을 금할수 없다.

조선에서는 로씨야가극 《에
브레너 오네긴》을 다시 형상
하였다.

세 세대들이 가족을 훌륭히
창조할수 있는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세심한 지도의
결과이다.

그이께서는 예술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조선의 창작
가, 예술인들을 절조됨을 이끌
어주고계신다.
그이께서 계시어 조선의 문
학예술은 날로 발전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부
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한다.
나는 앞으로 음악가로서 로
조선선관계를 위하여 더욱 적
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그이께서는 예술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조선의 창작
가, 예술인들을 절조됨을 이끌
어주고계신다.
그이께서 계시어 조선의 문
학예술은 날로 발전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부
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한다.
나는 앞으로 음악가로서 로
조선선관계를 위하여 더욱 적
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구바 조선친선모임 진행

구바조선친선모임이 4월
29일 아바나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장소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선군령도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
시되어있었다.

모임에는 구바 제 2인간의
친선협회, 조선노동당 지부
위원회, 《야구하이영웅》명칭
노동학생친선협동농장의 일군들
그리고 이 나라 주제 우리 나
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
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조선노동당 지부 위원회 제
1부위원장 후안 호세 페르 베
가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하여 10대의 어린 나이
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고
고난 항일무장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었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와 그 추종들을 반대하는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을 승리
에로 이끄시고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을 현명하게 명도
하시였으며 한평생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업에 바치시
였었다.

조선인민군은 앞으로도 백승의
력사만을 새겨갈것이다라고 강조
하였다.

본사기자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3400에 달한다 한다. 보강받게 된다 한다.

경제 성장
인플레이션 감소
인도네시아에서 올해 1.4
분기 경제가 5.7% 성장
하였다. 4월 28일 이 나라
중앙은행이 이에 대해 밝혔다.

물문제 해결 노력
모잠비크에서 물문제해결을
위해 수원지건설에 힘을 넣고
있다. 정부의 계획에 따라 전
국각지에서 1200여개의
수원지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자 연 고 해
◇인디아의 아삼주에서 4월
23일 무더기비가 내려 큰물
피해를 입었다.
◇에파드르의 여러 지역에서
올해 4월에 무더기비가 계속
내려 피해를 입었다.
4월 30일 이 나라 정부는
무더기비로 에스메랄다스, 나브,
파사 등 주들에서 14명의
사람자가 발생하고 1700여
명의 살림집이 파괴되거나 손상
을 입었으며 4000여명의
주민들이 한지에 나앉았다고
발표하였다.

실업자수 증대
일부에서 심각한 경제침
체로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4월 30일 이 나라 총
무성은 조사자료를 발표하여
올해 3월에 전국적으로 실업
자수가 350만명에 달하였
다고 밝혔다. 이것은 지난해 같
은 달보다 15만명 증대된것
이라고 한다.

본사기자

일본의 반인륜적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낼것이다

일본의 반인륜적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낼것이다
일본의 반인륜적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낼것이다

일본의 반인륜적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낼것이다
일본의 반인륜적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낼것이다

일본의 반인륜적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낼것이다
일본의 반인륜적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낼것이다

일본의 반인륜적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낼것이다
일본의 반인륜적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낼것이다

일본의 반인륜적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낼것이다
일본의 반인륜적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낼것이다

일본의 반인륜적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낼것이다
일본의 반인륜적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낼것이다

일본의 반인륜적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낼것이다
일본의 반인륜적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낼것이다

일본의 반인륜적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낼것이다
일본의 반인륜적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낼것이다

일본의 반인륜적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낼것이다
일본의 반인륜적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낼것이다

일본의 반인륜적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낼것이다
일본의 반인륜적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낼것이다